



거룩한 삶의 규범인 율법

1 기도

2 찬송 오라 우리가(138쪽)

3 말씀 읽기 시편 119:43-48

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6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47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

4 말씀 이해하기

시119편의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지 고백합니다. 그는 자신의 입에서 율법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(43절).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이며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(44절).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. 구원받은 성도는 꼭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?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.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?

바울 사도는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여 율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(롬7:12).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?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율법은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율법에 비추어보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. 전에는 자신이 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,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(롬3:20-22).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.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.

두 번째,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 율법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메이지만,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준입니다(요일1:7-8).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,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.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율법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.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을 사랑합니다.

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

1. 시편 기자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두 가지 기도하며 노력한 것은 무엇입니까?(43, 48절)

2.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은 무엇입니까?(45, 46절)

3.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?

4.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?

5.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적어봅시다.

6 함께 하는 기도

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,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.

7 주기도문

(정답 124쪽)